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鍾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 銀行지로番号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붉은 해가 솟는다 새 아침이 열린다



飛翔의 나래를 東海에 떠오르는 저 찬란한 빛, 90년 새 아침을 밝히는 大明이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대망의 21세기. 同窓會는 지난 20년의 경험을 살려 90년대에는 더욱 飛翔의 나래를 펼 것이다.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도 榮光이 있기를……。 (東海 추암 日出 光경)

冠岳春秋

新正 새아침, 멀리 밝아오는 東海를 바라본다. 太平線 저편에서 봉긋이 솟아오른 大明과 함께 1990년·말해(庚午年)의 새세상, 새시공간을 맞게 된 것이다. 만물을 비치는 그 빛을 찬미하면서 우선 祝福을 받으려는 마음의 주문이 외워지고 행복과 건강과 발전을 바라는 사람마다의 希望이 차분하게 떠오른다.

밤음과 꿈을 이렇게 찾아주는 歲時의 運氣와 特權이변 新正에는 그 실감이 더욱 진해진다. 「80년대」10년간이 세월의 저 기슭으로 가버리고, 새로 열린 「90년대」는 바로 21세기를 향한 「待望의 前夜」이기 때문이다. 그에 보태 8·15해방 45주년 「6·25」40돌을 맞고 있는 잊지 못할 紀念碑의 年歷이 기다린다.

이런 노트사항을 연상하여 지나온 20세기의 「10년대」책을 한 單位로 묶으면서 생각해볼 때, 그年代초기에는 인제나 風雲의 歷史가 우리 앞에 파동쳐 왔다는 反面의 事實이 선명하게 포착된다. 우선 1910년에는 庚戌國恥의 民辱이 따랐다. 20년에는 3·1抗爭직후의 수난이 극심했으며, 30년대초엔 中日전쟁의 서진인 소위「滿洲사변」이 터졌다. 40년대초에는 2차세계대전의 확대판인 太平洋전쟁이 휘몰아쳤는가 하면, 光復이후인 1950년에는 6·25, 60년대초는 5·16, 70년대엔 전국비상사태선포, 80년대엔 10·26사태후유증으로 빛어진 5·17조치 光州사태같은 政治的異變을 겪고 말았다.

90년대初는 과연 어떠한가. 안팎의 情況은 이미 「大激動」을 잉태하고 있다. 자고 나면 변혁이 분출되어, 地殼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파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 蘇聯과 東歐공산국들의 대변명은 단연 그 제1순위에 속한다. 몰아치는 개방·개혁·민주화·자유화의 바람앞에 수십년래의 一黨專재·族閥독재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베를린 障壁은 부서지고 브란덴부르크의 門은 열렸으며 한 時代를 주름잡던 붉은 독재자들이 모조리 물러났다. 그 다음은?.. 바벨사의 경고를 보

90年代의 「遠」과 「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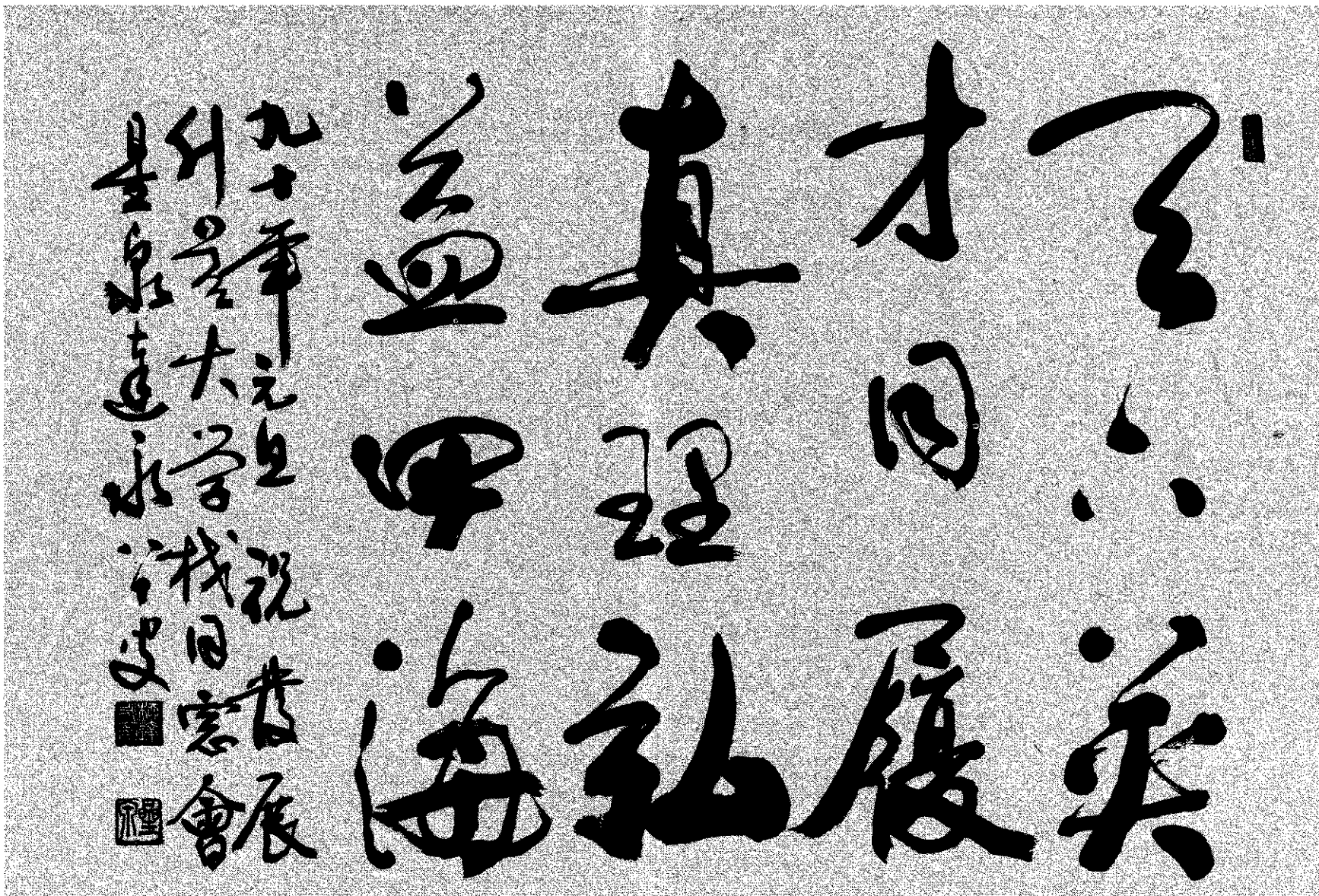
면 天安門사태를 야기시킨 中國, 세습독재까지 꿈꾸는 北韓집단, 그리고 탈보의 쿠바들이 쳐들리고 있다. 그리 만만치 않은 대상들이기는 하지만, 人間條件의 완성 즉 자유와 민주와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는 역사조류의 大勢는 확실히 그들의 「改進黨善」 아니면 「沒落을 요구하고 있다.

대변혁의 둘째 순위는 美·蘇관계의 「새時代」 진입이다. 부시·고르바초프의 물타기上宣言은 大戰이후 半세기간의 冷戰체제·알타체제에 종언을 선포한 것이 틀림없다. 지금은 다 함께 退衰추세로 몰린 양대국간의 이런 합의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和解와 協力」,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超友好國時代의 관제로 접어들 기세들이다. 그에 따라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나토(NATO)는 불원한 해체될 것이다. 核戰력을 포함한 세계적인 大軍縮이 실시되고 두나라가 주도하는 單一國際經濟市場이 형성되리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런 변혁과 화해의 풍향이 이땅에도 좀 밀려다치면... 이 일마나 뜨거운 우리들의 希望이며 冀求인가. 하나 北쪽은 아직 얼어붙은 상태다. 共產圈의 개혁불진을 애써 외면하면서 水壁을 높이치고 침묵만 지키려는 자세이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폐쇄적인 보수강경일변도의 「사회주의의 公산주의 노선」 사수, 「를 외치며, 中國에 기대고, 父子世襲으로 改革·현체제 유지와 대남 赤化혁명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北方의 교외의 앞길은 좀 트이기는 했지만 우리 내부 또한 難題는 허다하다. 12·15 대타협의 뒷마무리, 심각해진 경제危難, 하이틴 사회紀綱, 勞使간의 「春閨」갈등, 地自制 실시를 둘러싼 4角戰爭화, 자기大權을 노리는 政界의 이 전투구현상들이 설사리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살펴 생각하면 국운의 앞날을 근심치 않을 수 없는 실상이다.

이런 内外現實앞에 우리 서울대 同門들은 한번 더 피끓는 팔뚝을 건어붙이고 挑戰해야 하겠다. 세계적인 民主개혁의 대세를 人類史進로의 追越線으로 밀어올리기 위해서다. 국운의 개척자로서 危難의 극복자로서 새해·새연대의 主役다운 精神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다. 이런 年頭다짐에 주저나 異議는 없지 않을까.



柳達永 (36년 農大卒・母校名譽教授)

〈天下英才同履真理弘益四海〉

新年頌詩

새아침에

柳聖圭

목마른 가지 위로 단물 배어 오르듯
민들레 환한 돌레로 南風이 불어 오듯
아! 우리 그런 새해를 맞고 싶은 겨레가 있다.

외침은 滿發하고 메아리는 아득하고
煉氣 먹은 거리들은 목젓이 아리겠다.
힘겨운 한 해였구나 石鐘이여 證言하라.

붉은 해가 솟는다 새아침이 열린다.
南山의 솔바람이 北岳을 감아 돈다
겨레여 목놓아 부를 새노래를 마련하라.

雪山이 부시구나 새옷으로 갈아입자
新羅의 옥피리가 맑은 가락 풀어 내듯
정갈한 마음 자락에 고운 웃음 보태 보자.

鶴이 울어 三千年 靑山이여 일어 서라
漢灘江의 울음 보탠 너와 나의 所望이다
統一은 陵線을 타고 덩실덩실 다가 오라.

〈59년 師大卒・「時調生活誌」發行人〉

工大·師大 등 여섯 동창회에서 모임가져

會學의	趙性瑾고문 (조대 회장) 이 추천하는	5월
6명의	인원으로서	行政大 學院 發見研究委員會를서
선하여	당면한	환경개선
문제들을	연구하는	會
최초의	제안의	전원이찬
선정되	고있었다	
이밖에도	88년도	同窓
會獎學金	지급건에	기대
환경사회의	보고되었으므로	
공이	이이전	추진한다

[illegible]

창회 발원을 위해 조
용히 봉사해 왔었다.
故 元고문은 忠南 唐
진출신으로 모교 工大
전신인 京城高工을 香
업, 외자청에서 판공經
營을 시작한 이후 經
濟企劃院長, 農林部長
官, 無任所長官을 역
임했으며 65년에는 漢
陽大에서 명예인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관계를 떠나 뒤 한 국
타이, 東洋 나 일본 사장
이로 재직, 뒤에는 元
고문인 68세의 나이로
惠仁중기를 설립했으며
韓國能率協會長, 韓國經
濟新聞社社長, 全經聯부

官·政·財·言論界에 큰 발자취 남겨

[illegible]

※ 이欄은 同門들께서 펴낸 新刊서적을紹介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새로 저술한 著書를 本報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韓國 100 年の文學

——權寧珉著

■ 視覺的思考

—金貳煥編譯

74년 新
開大學院
을 졸업
현재 亞
南精密
무이사
재직중
金동문
Robert
H. Mc
in하 저

정화 교육학 등과 같
이 言語의 한계로 인
해 思考의 제약을 받고
있는 모순의 현상이다.
학問은 있어만 유
용한 것이 아니라
『佛敎의 眞理』만
을 만났을 뿐 아니라 사
의 자유와 불평등을 위
한 그리고 참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THINKING VISUALLY

시각적 사고

J. J. VAN MARCKE

정오에 출근한 차
절한 안내자
가 될 것이다.
〈평민사〉 4
× 6백판 2
책 58쪽 값 1
만 5천원 〈원

[illegible]

先進國 進入 확신”

히 유사한 점이 있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습니다.

또 발음 특성문제를
입력하였는데 얼마전까
를만장변을 무도모린을
독인정의를 선택이므로
단이주사태도 점보와
신의 기술이 한몫을
변지오. 이는 오글
사실화가 조지훈신의

해 말씀을 나갔는데다 사회를 둘러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 걱정입니다. 어떤 장려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단시일내에 다가와 있어 마음에 한 가지가 있어도 있을 것입니다. 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정치란 일정한

1.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조선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자, 우리 민족은 오랜 독립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남북 분단의 현실이었다.

① 梁好民 〈49년 文理大卒・한국논단發行人〉
② 李寬 〈53년 工大卒・21세기 委員長〉
③ 姜基遠 〈64년 法大卒・女性辯護士會 會長〉

參席者

내 민족주의를 실현하
는 정의입니다. 이 또한
문제가 없게까지 지속
될 것인가 또 과연 이
런 상태에서 지방자치
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
인지 불안을 느낄 수 있
기 있습니다. 희망적인
예기를 해와 하더라도
현재는 상한 하늘이 모든
것의 한쪽으로는 이미
완전히 도도하고 있는
습근코

姜義堯：梁成德님께서
는 주로 비판적인 말
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부분은 그것을 인
정하지만 과제를 들이
켜보는데 앞으로는 어

속될것입니다. 최근에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정정하고 인본의 자유도 되었으나 한편에서는 비례 갑신작 사파요 타도가 계속되 고 있으며 현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되고 있는전부터 계속 되고 있는현행 후대속 에 대한 불안감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의 기점으로 민주주의의 의의와 인식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생각이 첫 번째 실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가 제대로 자리잡혀서 정치인 신영에서 만

[illegible]

〈6면에서 계속〉

담해준것이 아니라 그 동안 부패와 암투의 부정적인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먹고살 만할 생산력이 늘어났으나 욕구나 기대감의 한계가 없어 절정 전체사회가 부패되어간 것입니다. 그결과 부패의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姜: 지금 부패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공정한 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李: 제생각으로는 최 저복지 즉 저주·의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곧 분배가 잘못된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해결이 우선돼야 분배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梁: 어떤 사회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세력, 즉 엘리트가 존재하는 데 이들이 위에서 파수꾼으로 물줄을 흐려놓으니 밑에서도 이를 따르다가 수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계를 명백하게 탈세를 막고 범죄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도덕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李: 세제란 폭넓은 의미에서 복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상속세 혹은 배당소득세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분배의 개념을 세제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姜: 과잉소비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그만큼 과잉생산과 과잉수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잉생산과 과잉수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잉생산과 과잉수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대 초에는

성되어야겠습니다. 李: 지금 말씀하신과 다분히 대한 문제점 같은 아시아권에서 다스려진 것으로 나타났고 있습니다. 지나친 부패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환점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姜: 그렇게 되면 경제·문화적인 상류층이 있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기에 우리들이 자급까지 우려할 점이 많았는지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李: 요즘 부유층이 사회에서 차지하면 학부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공부 안하니까요.

姜: 저는 전부터 인간을 완성·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인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과같이 인사와주로 흘러버린 교육현실에서 문화적·지적교육이 시간당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처럼 주관있는 부모에게 비본 가정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 요즘에는 고3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온가족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담해를 나누고 있는 (좌로부터) 梁好民·李 寬·姜基遠 等

하루빨리 전체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켜 다른 면을 살펴주어야 할 것입니다. 李: 우리가 21세기에 1인당 GNP가 1만7천을 정도 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쯤이면 필연적으로 양질의 경제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일사결정에 저해된 교육의 부재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스스로 양질의 문화생활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姜: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성으로서 정치·경제 수의감을 없애 올바른 사회의식을 갖기전에는 타락시켜·투기·파수비 등 각종 범죄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하는 시작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梁: 저 역시 오늘날 교육제도의 잘못으로 교육이 생존투쟁의 수단이었으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어머니들에게 동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까지 여성운동이 주로 여성의 권리신장에만 힘써온 것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

公害로 原子力에너지 使用 불가피 住居·醫療保障制 실현 均등 分配를

의 고도성장속에서 각종 공해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李: 만약 경제가 5%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도 약 4~5%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에너지는 불

공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너지수요를 줄여 공해를 방지한다면 경제성장을 줄이게 되는 셈이지요. 이처럼 환경문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는 인간중심의 사회로 비교적 에너지수요가 적은 산업으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천연가스와 화학제품, 자원의 절약과 사용의 효율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梁: 이와 관련하여 저는 화석연료에서 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경제와 과학발전의 신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화석연료의 신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화석연료의 신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화석연료의 신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수요를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수요를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수요를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姜: 저도 외환이지만 원유에 대한 대량수요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고 국력을 신장하는 길임을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梁: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88년에 치른 올림픽을 상기해볼때면 다 시한부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로써 큰 대회를 준비하는 의욕을 진전해 수준은 대외로 우리들의 자존심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요. 민족이 뛰어난 민족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요.

李: 저도 우리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양학자들의 의하면 우리나라는 2천10년까지는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야새 여러 가지로 사태가 나빠지면서도 우리국민이 여러 곳에서 성숙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2천20년대에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선 국민들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梁: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비단계인 9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두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문화와 예술의 발달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9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두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문화와 예술의 발달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울大學校의 뿌리

韓基彦

49년 師大卒 母校교수

농과대학의 뿌리는 가가
이것은 水原農林專門學校에
있다. 이것은 水原高等農林學
校가 일제 말기에 개명한
것으로서 다시 소급해 보
면 공식적으로는 1904
년에 개명한 「農商工學校」
의 農科에까지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있어 우리는 崔
炳熙先生의 교수(農大)가 농
과대학(農林學科)의 역사를 말
아줄 것이다.

교정과 동일한 양식의 전
술을 개시하여 매년 약 50
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켜오
다 1904년(光武8년)에
「農商工學校」로 개칭된
것은 8·15해방이 가까워
졌던 1944년(4·7)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국의 뿌리이다. 이
농과대학의 뿌리를
수리고 있었다. 이상을
견뎌야 하는 우리들의
시초는 1904년(光武8
年)에 개칭된 「農商
工學校」(1906년)이
다. 이 학교는 農·商·
工의 3과로 나누어 수
업
현
농과대학의 뿌리는 農
商工學校임을 말하고 있다.
다만 농업교육의 시초는 農
業傳習所가 앞선다는 것을

의 前身인 것이다. 즉 농
과대학의 뿌리가 「상공학교」
에 있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농과대학
의 定礎에 크게 기여한 趙
伯顯先生과 池永鎭先生이
하러진다. 이 두 분은 19
20년 農科大學의 전신인
水原農林專門學校의 제1회
졸업생인 동기동창이다.

大學에 수석합격 한 秀才로
당시 일본 신문에도 화제
가 된 분이었는데, 그 후
가시킴으로써 그가 쓴 글에
다들 「趙伯顯先生」을
州帝國大學 農學部에
하사 1925년에 農藝
化學科를 졸업하시고
國하시어 母校에서 교단
생활을 시작하셨고 현재도
敎授로서 일하신다. 57
년 그리고 학사시절에
한 60년 아니 선생
의 평생이 이 대학에서
신 것이다. 水原農林의 창
립이 1922년이고 제1
회 졸업생을 1925년에
배출하게 되었으니 水原
農大의 졸업생은 누구나
모두가 선생님의 제자이며
선생님은 스승이 되셨다.
한편 日帝下의 水原高等
의 한국인 학생과 華農의
品을 전수하여 말하기를「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水原農林의 韓國人學生들은
民族運動의 중심을 農民運
動에 두고 農村啓蒙運動에
주력하였었다. 특히 학원
처에 아학을 설치 운영하였
고 韓人學生만이 속하지
않았. 그곳에는 「世界文
化」의 첫 빛은 韓의 金
에서 文明의 朝鮮나왔
시원한 바탕 八達山, 맑은
물 瀉湖, 수고한 하
로 望 雲, 나날이 새
로 希望 滿足 東家歌
가 있었고 蹴球部는 韓人
學生들의 유일한 정유물이
기도 했다. 그런 속에서獨
立精神이 고취되고 제1,
2, 3차의 수위 高農事件
이 발생되어 많은 한국인
학생이 처벌을 받게 되었
던 것이다. 이를 같은 실
정에서 지켜보신 선생님의
가슴에는 무거운 못이 박
혔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근절을 겪게 되었으니 성
품도 그렇게 조용하지 되
셨는지 모를 일이다. (同窓
會報 제53호)」라고 회고
하고 있다.

분단아니라 그후 水原高等
의 교수 20여명중 단 두
분만이 한국인으로 재직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정년퇴임시까지 농과대
학교수로서 후진양성에 힘
쓰신 석학들이시다.
그중에서도 初代農大學長
을 지내신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農科大學

畜産科등 13개學科로 구성
趙伯顯학장 定礎에 큰 기여



◇農科大學 캠퍼스(수원)

水稻의 品種개량등 세계수준의 成果올려
冠岳캠퍼스 合流앞두고 또한번 跳躍기대

분단아니라 그후 水原高等
의 교수 20여명중 단 두
분만이 한국인으로 재직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정년퇴임시까지 농과대
학교수로서 후진양성에 힘
쓰신 석학들이시다.
그중에서도 初代農大學長
을 지내신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분단아니라 그후 水原高等
의 교수 20여명중 단 두
분만이 한국인으로 재직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정년퇴임시까지 농과대
학교수로서 후진양성에 힘
쓰신 석학들이시다.
그중에서도 初代農大學長
을 지내신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분단아니라 그후 水原高等
의 교수 20여명중 단 두
분만이 한국인으로 재직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정년퇴임시까지 농과대
학교수로서 후진양성에 힘
쓰신 석학들이시다.
그중에서도 初代農大學長
을 지내신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분단아니라 그후 水原高等
의 교수 20여명중 단 두
분만이 한국인으로 재직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정년퇴임시까지 농과대
학교수로서 후진양성에 힘
쓰신 석학들이시다.
그중에서도 初代農大學長
을 지내신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분단아니라 그후 水原高等
의 교수 20여명중 단 두
분만이 한국인으로 재직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정년퇴임시까지 농과대
학교수로서 후진양성에 힘
쓰신 석학들이시다.
그중에서도 初代農大學長
을 지내신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수에 대해서 華農 趙伯顯교

한데 있어 농업교육의 시
초는 農商工學校(1906
년)보다도 農業傳習所(1
901년)가 먼저 된 것이
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주한 말에도 주목해야 되
리라고 본다. 즉 「農林學
科」(1906년)보다 앞서 3
1의 專門學校官制의 공포와
도불구하고 1901년 農林學
科가 설립되었다. 이점을
사에 관한 교육 및 시험제
도가 실시되었다. 이것을
사적으로 살펴보면 190
0년(光武4년)에 우리나
라 정부는 서울의 農林學科
를 試驗試驗場(初代場長 金
嘉鎮)을 설치하여 수업을
행한 2년으로 하고 다음
해인 1901년 1월부터 학

과(初代校長 徐丙鼎)는 각
과 분리 독립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자 동포 설립
2년후인 1906년에 화
제를 개편하고 먼저 농과
에서 이의 실현을 보게 되
었다. 동년 8월에 공포
한 제정의 따라 현 서울
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인
농과대학교로 되는 등이다.
1907년의 水原의
새로 건축한 교사로 이전
하였고 1910년 8월 한
일합방에는 권업보통학교
부속시켜 교장과 장장이
임하게 되었다. 1910년
에 이듬해 1월 1일 農商
工學校로 개칭되고 191
1년 9월 1일 農商工學
校로 개칭되고 1911년
9월 1일 農商工學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다시금 생
각되는 것은 農商工學
校(1904)는 1899
년(6·24)에 세워진 「商
工學校」의 후신이라는 점
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더
욱 중요한 것은 명칭에만
「農科」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는 교육내용상 農과 商
과 工의 農商學科를 가
리키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
다면 서울대학교 농과대
학의 뿌리는 1899년까
지 소급시킬 수 있다는 애
기가 되리라 보는 것이
다. 더욱이 전신 후신이라
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분
명히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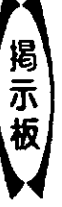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가 「農商工學校」(1899)
가 「農商工學校」(1904)

[illegible]

※기사 넘쳐 다음
계속 오니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호의

▲추천교육대지부	▲삼부토건(주)지부	▲두산식품지부
25만	11만	13만

수필

忠直 勇猛 忍耐 3德의 표상

一 吳昌泳 (53년 獸醫大卒・서울大公園研究員)



馬頌

변했다. 물도 수심배나
 커졌다. 커진 물줄기에
 를 유지하지나. 빨리썰
 자에 담았다가 느릿
 살릴 필요에성다. 이
 땀으로 Equus*를 말
 이다.

2백만년전 후세에
 전하는 왜 그랬는지
 Equus가 6천수백만

저리는 달을만 볼립다
스이후 거꾸로 구경하
에서 건넌다 물이 만
이간 제부기 꽃은 조
usang 이 되엇지
은정애 버그 황새애(Feo-
ral horse)은 더 내해
기 전이오
저기사나까지 말이 오
불은거기 산악하 만장
이오정기 전이애 버그
함. 그 불나 전이오정
간졌는 다름 다시전
간한 기꽃이 애비애

나 현재 유익의
아생발과인 피를 섞고
가며 여파를 물의 우수
한 가축만을 만드는데
기천 공의 크다.

인간에게 유용하고,
마음을 교류할 수 있고
거다 우아한 아름다
움을 지닌 동물인 이
것을 가축화한 인간은
그 예지를 파시해 도
을 것이다.

민족의 이동, 문화의
교류는 말의 통과다.

族에 앞서 북방을 초월한 마의 피를 이은 우수 한 종횡마를 구사했 다. 그리고 그 영역이 왜곡이까지 미쳤던 漢武帝는 天馬를 얻 으려 두차례나 서역정벌을 감행했다. 말의 진 흥도의 침략의 대 비하기 위해서였다. 말의 功 用은 功 用은 功 用은

한 미담을 주인공을 구출
 취한 김유신을 여친의
 비록 모시고 갔다. 그
 한 총적이 아닌가. 변
 형이라면 전철속에도 되
 이드니 용맹의 아나카
 무거운 짐을 지고 천
 리를 가니 그 인내가
 가를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유구한 세
 을 오직 인류에게
 사해전과 오를

歷史는人間과말의합작
한때國力으로평가를받아

한때 國力으로 평가 받아



◇吳昌泳 동문

[illegible][illegible]

동·식량이
있다. 양마가
족은 언제나
자였다. 언제나
말에 3척이
첫째 출지요,
팬이요, 셋째
인내이다.

에 대한 수고의 대가
그동안 인간을 벗어난
아 이런 순간을 즐기
는 것일까. 아무튼 지
을 끌고 전쟁터 내를
달려간 것이다. 이것이
말이다. 올해는 庚午年
배처럼 을산해인 己巳
년도 갔으니 馬車처럼
말과 해가 부딪난 곳
이름을 말하러 가서 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바
독
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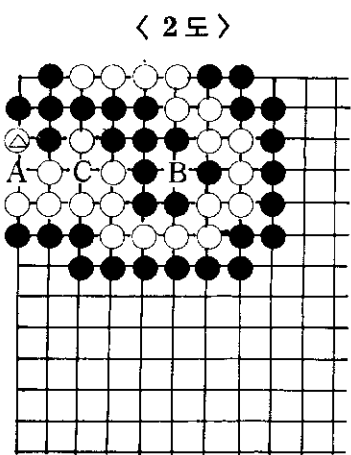
< 7 >

趣味生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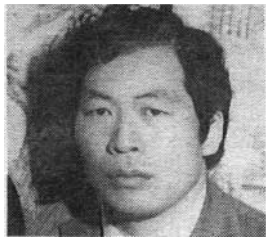
朴治文

〔79年 人文大卒・世界日報記者〕

「3 패」와 同刑반복금지의 원칙

[illegible][illegible]

同門作家短篇選



朴海俊

▲60년 師大卒 ▲66년 文理大卒
▲文學博士 ▲小説家 ▲主要 작품
으로 長篇「다시 어둠속에서」「戰
爭과 사랑의 意味」「密航記」、短
篇으로 「빛과 그림자」등 多數.

유월의 빛과 그림자...
스팔트 위에 출렁이듯이 밀
려오고 있었다. 짙은 진홍
색의 의뢰는 아무런 다른
색조도 변화도 없는 지극
히 단조로운 흐름이었다.
출사 진공상태.
그런데 인공조명의 의식
가운데서도 단지 명암이
엇갈리는 듯한 순간적인
점으로 인하여 숨이 막힐
듯한 긴장과 불안을 주체
하기가 어려웠다.
바닷속처럼 고요하고 무
거운 정열을 지니고 흐르
는 저런 빛의 밀려오는 그
빛 햇살은 마침내 더 나
아갈수 없는 압박에 부딪
치기라도 한 듯 요란한 폭
음을 내면서 아스팔트 위
에 작열했다.
사파란 빛사! 지랄타발
사!

대기를 침식하는 최후연
연막! 붕괴! 누구를 향해
고든느 땀과 파가운 땀새
/ 그리고 눈물과 비비
자 철철 흘러 내오는 미
적지근한 눈물과 콧물을
이런 것들이 사파란의 시
야를 온통 뒤덮고 버려져
불안스러운 긴장과 비장한
침묵이 무겁게 엉켜있었
던 거리는 다시 진정할수
없는 혼란속에 빠지고 말
았다.

헤화동 로터리와 원동동
그리고 종로5가의 길목들
지크고 있는 정열의 포위
되어 전진할 망설임이 있
던 무리들과 밤다가 주축
이 된 학생들의 데모대열
은 여러차례 거듭되는 최
후 발사로 인하여 대모
가 차츰 흐트러지기 시작
했다. 그와 더불어 같이하
고 종로5가쪽에서 데모대
열과 마주 대치하고 있

단 일대의 기동정찰이 곤
박을 마주 휘두르면서 후
퇴하는 데모대의 중심부를
향하여 돌진해왔다.
벌써 여러차례 밀고 밀
리는 판국이었는데 데모화
생들은 그들에게 불합치
않으려고 기를 쓰고 달아
났다.
가장 가까운 도로변의 민
가나 구경하는 시민들을
으로 몸을 숨겨서 대화했

아버지와 아들



망물로 아스팔트 위를 노
려보고 있었다.
종로5가쪽 기동정찰대가
학생들의 진격해 있던 +
자로 지점에 채 이르기도
전에 그들을 거의 모두재
빠르게 피신시킨단 원동동
과 헤화동 로터리에 대기
하고 있던 기동정찰대마
있었다. +자로 지점으로
중간이 돌진해 왔다.
그러자 도로 양편의 美
大와 法大 마당으로부터
수많은 돌맹이가 버
락처럼 쏟아지기 시작했
다. 아무리 기동정찰대로
지만 나니 민청성으로보
아 학생들을 상대하기에
이 부친데다 불시에 돌벼
락을 만나리라 군복과 헬
멧가스마스크를 주체하
지 못하면서 허겁지겁 투
석들을 피하였으나 개중
은 수없이 날아드는 돌맹

이외 버린들 맞아 피를 흘
리면서 병원에로 이송되는
사람들도 여럿이 눈에 띄
었다.
미술대학 마당으로 피신
했던 태수는 멀찌감치 떨
어져서 그러한 정열들을
무히 바라보고 있었다.
사파란과 지랄타발 가스로
시달리게 한 학생들을
비비면서 돌맹이를 갈구지
고 있었으나 한가다 서
글을 상들을 펼쳐버리지
못했다.
데모로 인한 갖가지 조
화롭지 못한 광경! 아스
팔트와 콘크리트벽이 가로
놓인 차단된 공간! 밀고
밀리는 부단한 생명의 소
모!

안수환! 분명 조화롭지
못한 소모의 안수환이었다.
그것은 마치 서로 이빨
이 맞닿는 두개의 불나
바위가 한데 어우러져서 급
속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
는 하나의 생선적인 제구실
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와
해전전의 위태로운 현상
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현상은 태수 자
신의 처지와도 흡사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간의
우선 그가 데모대의 일원
으로서 기동정찰대와 맞서
고 있다면 이 때들을 저
지하기 위해서 역시 학생
들의 데모대와 대치하고있
을 그의 아버지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말단 순경에서부터 시작
된 삼십년 가까운 경찰생
활에서 인신양면적처럼

고 있었다.
이런 어색한 감정이나
들이요 며칠새에 가정부
위에까지 침투하고 있었
다. 진실을 외칠 길은 없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주
저를 외치는 말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실이 아무리 불만스럽
더라도 세상이란게 예나
지금이나 다 그 모양으로
변은 것이니 눈 딱 감고
화전의 전진하는 것이었
고 지방공무원인 형은 형
대로 공갈 반, 협박 반이
로 고을하기 싫으면 화파
를 집어치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데모의 격돌속에서 이리
말리고 저리 말리다가 해
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
갑살을 앞둔 불고 두꺼운
잠옷의 벼를 의식해야하
는 잠잠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아침이 오고 그리고
또 저리로 쏟아져 나와야
하는 안수환!
그것은 분명히 비생산적
인 생명의 소모라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데모대열을
여탈수 있는 안타까움이바
로 태수의 약점이요 고민
이었다.
그는 한결동안 미술대학
앞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우울과 함께 다시 거리로
뛰쳐나왔다.
기동정찰대가 비산하는
돌맹이를 피하여 멀찌감치
어져 나가서 대기하고있
을동안 퇴진했던 학생들은
어느새 신자로에 주영우의
모여들어서 대열을 정비하
고 있었다.
아까보다 더 혼란해서
심을 지르기도 하고 부정

선거를 규탄하기도 하단
금기야는 군사파쇼를 타도
하자는 구호를 외치기 시
작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헤드라이프까지 등장했다.
한결동안 구호를 외치던
그들은 스크럼을 짜고 종
로5가쪽을 향하여 서서히
진격해 나갔다.
그러나 그들의 채 스루
나진 줄을 모진진하지 못
했을 때의 원동동과 대
기하고 있던 기동정찰대가
그들의 버스와 팔장차를
고와서 데모대의 퇴로를차
단했다.
그와 동시에 종로5가쪽
으로 밀리고 있던 경찰기
동대가 기세연전하여 돌진
해오더니 군복을 휘두르
서 데모대의 선두를 난타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순간이었던.
퇴로를 차단당한 데모대
는 피신할 겨를도 없었다.
투석으로 완강하게 저항했
으나 군복의 빛이 쓰러지
거나 하나 둘 무릎미들
잔화! 잔화! 심정질
이었다.

데모대의 중간에 끼어
던 태수는 도로변의 시민
들을으로 피신하다가 경
활봉에 후두부를 다타
고 피를 흘릴 줄을 모르
수한 위계발자등을 휘
게 의식하며 정신이 아
하게 멀어졌다.
태수가 다시 정신을 차
렸을 때는 한참늦었의 부
우영제 안개처럼 내리
고 있었다. 검검의 무겁
내리덮하는 듯한 부우
악으로 한 가운을 입은
간호원의 모습의 차츰
진명해지면서 그는 자신
의 현실에 뒤떨어졌음의
다 부표정한 간호원의
콜과 오버랩되면서 비
현(현) 어머니의 얼굴이
타났다. 창밖의 잔잔한
물파는 대조적이며 어
머니의 모듬을 창백했다.
공부
하기 싫으면 화파를
치우라고 으름장을 놓던
의 얼굴도 오버랩되었다.
태수는 그가 종로5가
서 심신한후 팔장차에
피와서 경찰병원에서
사실을 곧 알수 있었다.
그러나 데모대의 무수한
맹이 머리가 떠져 전신
이 피투성이가 된 그의
버지가 바로 그의 영
생의 인연해 있었다는
은 가엾게 모르고 있었

〈계속〉

教授人事

모진대학원교수鄭文鎬二보
▲공대교수 黃熙隆二점
퓨터 신기술을연구중수장
결투 ▲사학대학교수 李光
雄二기초외국제교를기기
센터 계속기기부장전부 ▲
연구진선원 연구부장 결
두를 명함 ▲공대조교수
高敎武二중앙교육연구진선
원 연구부장 전부를 명

3백점 이상 지원자를 뽑을
합격자는 단 1명(자연계)
에 불과했다.

학과별 최고 득점자와
최저 득점자간의 격차도
역년에 비해 크게 줄었
다. 합격자들의 득점평
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교수업 충실”

전체수식
梁宸鎬
군

『수화한 만화』 자신
했고, 『영아』에서 1
2개씩, 국사와 율리
에서 2개씩, 틀려 수
선인 기대하지 않았
『뽀뽀만화』



◇양진호군

정제화파를 지망, 학
원고사 3백33점을 회
전체 수석으로 차지한
梁成鎭(18·대구)이
화표수인임을 증명하
고, 『영아』에서 1
2개씩, 국사와 율리
에서 2개씩, 틀려 수
선인 기대하지 않았
『뽀뽀만화』

모든 교과를 수업시간
에 소화하려고 노력했
고, 『영아』는 정은 유
식시간에 풀어서 보고 그
래도 미친듯이 정애가
서 해설했다가 첫
梁成鎭, 『뽀뽀만화』 정
애를 『영아』로 정애
이 상투였지만, 대구고
진화파에 한참 입문
계 수석으로 지냈다고
梁成鎭의 10월 1일

46, 고2 때는 모교수학
전국고교생 수학경시대
회인 수화학회에서 대
수인 수화학회 멤버였기
로, 이 평은 수화에서 수
화인 만화를 읽었다.

후미지 단정애와 함께

합격선도 3 ~ 7점 높아져

科別점수차 줄고 再修生 46% 차지

특정자는 전체합격자의 42.5%로	모교는 지난 12월 28일	7%·검정고시 0.5%)
로고사 3백점이상의 고	신입생 합격자	로 높아져 해마다 두드
점수는 전체합격자의 42.5%로	4천3백84명(체육경기자	머지고 있는 재수생·검
이외에 따르면 합격자중 학	1명 선발제)의 명단을	추세를 타고 올해 고
졸은 지난해 43.4%에	나선했다.	수세를 타고 올해 고
45.8%(재학생 53.7%·	전체합격자중 재수생의	검정고시 비율이 고
자의 수가 지난 10년간	증세를 보였다.	고점자와 재수생합계

——90학년도 新入生 4,385명 선발

3백점 이상 합격者 작년 2배



◇ 28일 오전 합격자 발표장의 모습

을하려고 신문제가 삼위원
 학생이나 재수생에게는화
 년보다 오하러 쉬었다던
 무의도 부속에서
 이년 입학하는 또한
 인가학과와 비인가학과간
 의 전수적자가 좁혀지는
 추세속에 대부분의 학과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3
 27점씩 높아진 가운데
 경제학과와 법학과의 합
 격선이 3백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의교 경영학과등도 3백
 점에 가까운 것으로 알
 려졌다. 자연계열에서는공
 대 제1·계측학과와 화학전
 이3백점을 웃도는수준을
 리의예과도 3백점에가
 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고(18·徽文高3)이 차
 지었다.

여자 인문계수선은 영
 문과에 지원한 養玖汀양
 (18·이대부고3년)이로3
 백26점을 얻었고, 여자자
 연계수선은 의예과에 지
 원한 崔允羅양(20·미림
 여고)으로 3백17점을
 얻었다.

모교美大와 東京예술대
 학이 교수합과 화술합
 류를 특수으로한 협정을
 최근 맺었다.

이날 교류협정에서 미
 대 趙英濟학장과 東京藝
 大 후지모토(藤本) 학장

美大 | 東京藝大 학술헤럴드

[illegible]

올부터 敎養과목 크게 늘려

역으로 세분하고 강좌수도 현행 79개에서 3백36개로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문과화 ▲사회과학 ▲자연과학등 5개부문의 학생들의 광범위한 지적 관심을 소위 화하기 어려웠고 개별

그 밖에도 「한양학」은 「한문판신씨집」이라

다양한 知的 욕구 수렴

北韓 관련 科目 등 신설

기존의 교양과목은 학생편의에 따라 ▲교양필수 ▲외국어 ▲

위해 북한화개론 사회주의역사 명상과 자아발현등 다양한 강좌가 포함돼 있다.

단정(端正)은 인성으로

들 주제를 깊이있게 다룰수 있는 시간까지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이 지적돼왔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별과목에 밀도있는 한 주제를 통해 꿰어야 할

는 개념을 도입했다.
학문관심영역이란 학
교가 자신의 행정적편
의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제시하는것
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
계와 학문에 대해 갖
고 있는 다양한 지적

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주제별 교과목을 달고 있다. 기존 교양과정에서 단 순히 국어·작문과목이었던 것은 새 과정에 서 문예창작, 학술논문 작성법, 국어문체와 수

라 화생들의 교과선택
 폭이 매우 넓어진 점
 이 이번 개편안의 특
 징이다.

또 유신과 5공시절
 필수선택 국채과목이라
 하여 화생들의 빈발율
 상단 韓國史・국민윤리

의 뒷발침이 필요하
고 관계자들을 지적하
고 있다.

모교측은 일단 3백
5개 과목중 단장 내
년부터 강의할 수 있는
과목부터 순차적으로가
르칠 계획이다.

고 123학년 사이에
나눠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79개에서 3
백 5개로 엄청나게 늘
